

연합회 동정

‘환경기술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및 강사 선임에 관한 협의

연합회 이상호 회장과 김병오 사무국장 그리고 본회 교육협력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 최명기 실장과 박도성 교육팀장, 최문선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8일 연합회 사무국에서 하반기 환경기술인 현장실무교육에 대한 전반적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 선임에 관해 상호 협의 조정했다.

양적 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내용과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해보고 종합 분야에서 현장 감각이 뛰어난 강사를 선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

이상호 회장과 김병오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0일 ‘제1회 환경기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했다.

본 연합회에서는 포상관계, 공동 부대행사, 장관 참석 등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고, 환경부에서는 공동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뒤이어 김병오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1일 환경기술인의 날 행사와 관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김영화 원장과 대담을 갖고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해 환경부와 토의

이상호 회장과 김병오 사무국장은 지난 7월 20일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와 토의했다.

본 연합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법정교육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했다.

그간의 법정교육에 대한 우리 환경기술인들의 실상과 교육현황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점, 향후 대책 등에 관해 많은 토의가 이뤄졌다.

본 연합회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목적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하였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여러측면에서 의견수렴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합회장 동정

이회장,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회 착수보고회’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8월 10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환경부 주관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회 착수보고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보고서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기업의 환경기술인 입장을 전달했다.

본 연구회회의는 1년여에 걸쳐 진지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 폐수배출허용기준 체계 및 지도·점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폐·하수종말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소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회에서는 우리 연합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배출업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본 용역의 결과물은 내년 7월쯤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희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환경 정책연구회 조찬 토론회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8월 5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환경정책 연구회 자문위원으로 조찬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실내공기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실내공기질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환경부, 건설부에서 기초 및 주제발표를 하고 실내공기질 관련정책의 실효성제고 방안,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관리대책 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열린 토론이 이뤄졌다.

본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은 관련부처 법제정과 국회차원의 입법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회는 국회환노위 위원장 이경재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 과 민간자문위원 30여명과 연구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차원의 연구모임이다.

이상호 회장, 환경규제혁파T/F회의에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8월 4일 환경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규제혁파T/F회의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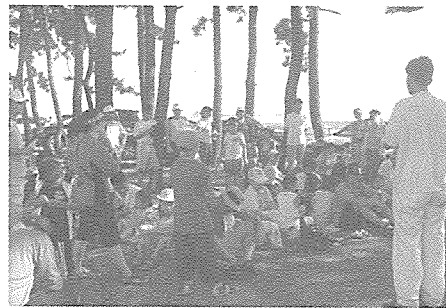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 제정법률안 규제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시·도지사 사무업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항공기 소음 피해예상지역의 소음한도 강화,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완화, 공휴일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강화 등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정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규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 심의했다.

전북협의회

'2005 한마음 가족 캠프' 실시



전북협의회(회장 한상은)에서는 지난 8월 13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소재 선도리갯벌체험장에서 20여가정 총80여명의 회원사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5 한마음 가족 캠프'를 실시하였다.

막중한 업무에 지쳐있는 협의회 회원 환경기술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협의회 3인의 총무이사(이원웅, 백금, 김경수)들의 애씀으로 실시하게 된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넓은 백사장에서 즐겁게 뛰어 놀며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연합회소식

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소중함과 우리의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체험 종료 후에는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을 실시하여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나눌 수 있었으며 해변가 식당에서 협의회에서 제공한 바지락 칼국수를 시식함으로써 현지 음식도 맛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경남협의회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심사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에서는 지난 8월 17일 경상남도 2006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경상남도에 회신하였다.

이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지침(04년 3월 환경부)에 의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향후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을 유도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체험환경교육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체험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 교육운영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피 교육대상자 모집, 교육관리 능력이 적정하고 청소년의 실천적 환경의식향상에 도움이 되며, ▲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뛰어나고, ▲ 지역적 환경특성이 고려되고, ▲ 소요예산의 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심사 후 채점하여 순위 결정된 후 환경부에 심사 승인 요청을 하는 program이다.

한편 황 회장은 경상남도로부터 심사위원 7명 중 위촉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10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5개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순위 결정을 하였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얻으면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06년 예산 배정액은 50,000천원이고(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신청 예산액은 예산 배정액 대비 460%인 229,884천원이다. ◀

「월간 '환경기술인」

- 구독방법 : 무통장 입금 기본(차후 지로용지 납부 가능)
- 구독료 : 6만원(1년)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